

### 말씀 (요한복음 1:1-18)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만 해도 은혜롭고 감사하다. 기왕 은혜드림바에야 언약잡은 예배가 되어야 한다. 예배는 도구고 내용은 언약이다. 그래서 언약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은혜 받고 힘 얻는 시간 되기 바란다.

오늘 우리가 받은 제목은 말씀이다. 우리의 희망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희망이다. 그리고 말씀이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다. 진짜로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면 정말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하나님 외에는 소망 없다.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책이다. 그래서 사도요한은 1절부터 그는 말씀인데 하나님이라고 선포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였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수 있는 사람은 둘만 있다. 첫째는 하나님이고 구원받은 그 백성이다. 그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가 창조주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다. 생명 너무나 귀하다. 죽으면 안된다.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고 하였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이 잘 보면 이해가 안된다. 말이면 말이 지 어떻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는가? 이것이 이해가 안되서 어떤 책은 굉장히 설명하려고 했으나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안된다. 여기에 바로 인간의 언어와 머리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고 한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면 믿겠다고 한다. 그건 방향이 틀렸다. 그러서는 절대 안 믿어진다. 믿고 나면 알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전부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믿고 나면 지식이 오고 지식이 오게 되면 더 믿어지는 것이다. 결국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다. 다 알아야 한다고 하면 한계에 도달할 사람이 있다. 믿는 것은 누구든지 할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말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단어이다. 우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은 모두 말씀으로 하셨다. 무슨 재료가 있어야 하는데, 재료가 없다. 말씀으로 하셨다. 가만히 멈춰서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이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다. 내가 하나님께 말한다. 내가 말하는 데 그게 나타나는 것, 이게 놀라운 일이다.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중풍병자가 나왔다. 당시에는 중풍병자는 저주의 상징이었다. 아무도 손 못대고 어쩔수 없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고 있었는데 다른 것 아무것도 안하고 말씀해버리니까 나아버렸다.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은자도 살아나리니까 살아났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어 버렸다. 이것은 물감 탄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다. 예수님이 흠을 발라줘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했는데 말씀대로 씻었더니 보이는 것이다. 난리난 것이다. 그런데 개인적인 이런 기적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온 우주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 우주가 전부 말씀으로 창조되었는데,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사는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는데 최고 가까운 은하계가 18만 광년 거리에 있다고 한다. 광년은 빛이 1년동안 가는 거리이다. 빛이 18만년동안 가야 하는 거리인 것이다. 이것이 제일 가까운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에서 나왔다. 참 놀라운 일이다. 이것이 말씀이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말씀에서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단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설명하겠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말씀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다르다. 이 태초는 무엇이 나타나는 그 시점을 태초라고 하였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만 3분이 계신 그 때를 말한 것이다. 그 말씀이라는 것이다.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만 내 지식도 부족하니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다.

#### 1. 말씀

이 말씀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연구해도 잘 모르니까 믿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 생각할 것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말씀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

고 싶은 무슨 말이 있는데 바로 그 것이라는 뜻이다. 내가 내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데, 그 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의 전부다 그 안에 전부 다 들어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가 대단한 것이다. 대단한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모든 말씀이 십자가에 다 나타났다. 그리고 그 일이 있는 후에 이 모든 말씀을 끝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하셨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아들이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뜻이고, 이 아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하는 예언을 끝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야기 하다가 아들을 통해서 끝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 이렇다면 결론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하시고 말씀의 결론이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다. 그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따라가야한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안하면 이것은 완전히 무엇을 놓친 것이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중요한 축복들이 나타난다. 때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언약이 되는 때가 있다. 매일 되고 매주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건 너무 드물고 한번씩 들어와 내게 언약이 되는 때가 있다. 어떤 것은 한주간 있다가 나가고 어떤 것은 들어와서 평생 자리를 잡고 안나간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평생 자리를 잡았다.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때부터 내게 모든 것, 완전히 달라진다. 첫째는 영권이 달라진다. 전에는 불안했는데 없어진다. 전에는 흔들렸는데 이제는 괜찮다. 상황은 똑같고 응답은 안되어졌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은 출발이다.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달라지면 계속 다른것도 달라지고 지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이런 언약의 말씀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일단 백년의 응답을 받은 것이다. 앞으로 얼마만큼의 응답, 천년 만년의 응답을 받을지 모른다. 이것은 평생을 두고 성취된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언약의 말씀의 한 부분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수가 없다. 이것이 말씀의 권세이다. 이것을 두고 본문이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와 내게 언약이 되면 우리는 권능을 누리게 된다. 정복을 누리게 되고 기도의 영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전에는 기도를 해야 내가 승리하는 것을 느끼는데 지금은 기도를 안해도 승리를 누리게 된다. 그런데 그때 그 언약을 누리는 기도가 더 깊어지면 그것은 승리 정도가 아니라 정복정도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어져버린다. 전에는 싸워야 되는 수준이어서 정복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넘어섰기 때문에 정복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 이것이 말씀이 내게 언약이 된 중세이다. 왜냐면 그 말씀은 사람이 상상할수 없는 어마어마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누가 죽은 자를 살릴 것인가? 누가 이제 가서 나눠주라 했는데 계속 나오는 것이다. 오병이어. 이런 인생을 살수 있다는 그 말이다. 말씀 들어와서 언약 되면 일단 백년의 응답 받는 것이다. 옛날에는 우리가 막 기도를 했어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응답은 많이 받았다. 그때는 부족하지만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도 받고 우리가 봐도 은혜롭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우리 경험에 의하면 그것이 충분하지는 않았다. 나도 나름대로 사람들 보기에는 그랬었지만 하나님께 이제는 기도 안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실제로 안했다. 하나님하고 마음이 돌아서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니 기도가 될수 없었다. 그런데 내게 개인 언약이 확실하면 모든 것이 구체적이 된다. 아주 구체적이고 더 확실하게 정복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는 언약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려는 이 사명을 가진 하나님 자녀이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안될수 없다. 왜냐면 이 언약의 말씀 안에는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가 있다. 이 언약이 내게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비웃겠지만 나는 그정도가 아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될줄 알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당할 이유가 없다. 렘넌트들, 청년들 이 언약 잡고 기도하기 바란다. 어른들도 말할 필요 없다.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지리멸렬할수 없다.

우리는 CVDIP메세지 들은지 오래 되었다.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기도제목이 된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은 C(언약)이라는 것을 다 알 것이다. 그런데 이 C가 뭐냐는 것이다.

언약이니까 그리스도이다. 그러나 그냥 그리스도 객관적으로 떠 있는 그리스도 아니고, 그 그리스도가 내게 언약으로 나타날 때 그 때 그 순간이 C인 것이다. 이것이 내 언약이 되어지고 발견될 때 바로 C가 시작되는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를 누림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명을 쥐서 언약으로 들어오면 그게 바로 시작이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조금 세워지는 그것이 바로 나의 비전이라는 것이다. 비전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나? 당연히 기도한다. 안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다. 그리고 결국 이 기도 하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이 비전보다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것이 Dream이다. 내 인생의 꿈이 되는 것이 드림이다. 이 상황이 되면 기도를 더 깊이 할 수밖에 없다. 그냥 하는게 아니라 진짜 생명걸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다. 그러면 결론 오게 되어 있고 작품 나오게 되어 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CVDIP이다. 요셉의 꿈을 가지고 생각하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다. 요셉의 꿈은 그냥 꿈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하나님의 예언이고 메시지이다. 내가 니 인생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아 굉장히 가슴이 벅찼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금방 찾아오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어쩌다 말씀 들으면서 한마디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믿음되고 성취된다. 이것이 안되던가? 요셉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기도하게 된다. 그것 말고는 마음에 소망이 없다. 그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CVDIP된 것이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말씀이 언약으로 딱 들어오는 것이다. 내가 오늘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게 들어오는 것, 이것은 내게 너무나 필요한 작업이다. 그래서 이것이 소원이면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말씀을 접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도 언약을 주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이것이 사실입니까? 말씀이 언약으로 들어오면 사실입니까? 진짜면 나도 한번 되게 해주세요. 금요기도 시간에 렘넌트들에게 이야기 했다. 다른 기도 할 필요 없다. 기도 하나도 안해도 괜찮다. 불신자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다른 기도 할 필요 없다. 언약기도 해라. 나도 내게 언약이 있게 해주세요. 오늘 저녁에 기도하고, 그 다음날 저녁에 왜 내게 언약이 안 옵니까? 언약을 주세요. 그 다음날 저녁에 두 번이나 기도했는데 왜 안와요? 왜 한달을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내 말이 안들리나요 하나님? 될 때까지 그것만 하라는 것이다. 다른 것 필요 없다. 안해도 괜찮다. 딱 하나 들어오면 진짜 시작이다. 옛날에도 시작이었다. 옛날에도 끝났었다. 이제 그런데 진짜 끝이다. 그것이 말씀이 들어와서 언약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C이다. 류목사님이 이것을 처음 40년 전에, 혹은 삼십몇 년전에 계속 나와서 지금 CVDIP라는 단어가 된 것이다. 우리는 이런 전도자와 함께 동시대를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 성경의 많은 표본이 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나는 이렇게 한다. 얼마나 감사한가? 살아 있는 표본이 오늘 도 내게 있는 표본을 전달하라는 것이다. 단어만 따라가지 말고 단어가 내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단어가 계속 바뀌어도 항상 그것을 말하고 있다. 처음에는 복음 이야기 하고 그리스도만 몇 년을 이야기 했다. 그러면 지금 CVDIP라는 단어로 바뀌었다고 해서 근본이 바뀌었는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그것이 C이다. 안 바뀐다. 단어 따라 다니면 방향한다. 내가 그리스도도 자리잡고 그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소화하면 내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도 내게 이런 언약의 말씀이 하나가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말씀이라고 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권세가 되고 응답이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내게 응답달라고 하지 말고 말씀달라고 해라는 것과 같다. 니가 이방인이냐? 이것저것 달라고 하는데 그것 말고 너는 하나님의 의, 너는 이것을 달라고 해라. 거기서 내 인생의 모든 응답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결국은 내 인생의 작품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들어와서 전체의 답이 되기를 축복한다.

## 2. 증언자

전도자라는 말이다.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였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모든 사람이 자기를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증언자들이다. 모두가 그렇다. 빛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세상을 어둠에서 건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유일한 이유이다. 이해되어야 된다. 그리고 진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냥 머리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유이다. 이것이 유일한 이유가 되면 우리가 사는 다른 이유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세례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길을 닦는 사람이라면 사도요한은 그가 누 구인가를 증언하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는 두사람 나온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요한, 그리고 예수님 앞서 증언한 세례요한 나온다. 사도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2,3서를 썼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중요한 것을 기록해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처음 이야기 하였다. 잘 생각해야 한다. 그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것이라는 것 때문에 보냈다. 14절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였다. 은혜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였다고 하였다. 당연하지 않은가? 말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주변에 은혜가 충만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못 알아본다고 하였다. 그들은 영접을 안 했지만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였다. 놀라운 일이다. 영접했는데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다. 한 번씩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모두 지옥견학 한번 가면 참 좋을 것이다. 거기에 영원히 가면 안되고, 견학만 하고 오는 것이다. 어떤가 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뒤집어질 것이다. 그것이 정상인데 안 뒤집어 지고 있는 이것을 정상으로 생각한다. 18절에는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하였다. 모양은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고 우리에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육신을 입었고 그 외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렇다 하고 보여줬다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증언해야 할 내용은 이 그리스도이다. 예수님 그가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말해야 한다. 이것이 오직 세상의 빛이다. 이 사실을 말하는 말씀 외에는 세상에 길은 없다. 그래서 빛이 없으면 세상의 어둠이 해결된다. 우울증 그 느낌이 어둠이다. 어두우니 빛을 싫어하니 방안에 커튼을 치는 것이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 가면 문을 열게 되어 있고 바깥에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것이 빛이다. 이걸 전하라는 것이다. 얼마나 귀한가? 모든 제자와 증인들이 이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증언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그리스도요 그는 하나님이다.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그가 나보다 먼저 있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먼저 있다는 것은, 사실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나보다 먼저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증언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세상을 살리는 증언자의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간단하고 한 게 딱 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을 누리는 기도이다. 그냥 기도도 좋다. 그런데 알맹이가 있어야 한다. 언약을 딱 누려야 한다. 언약을 누리면 영적인 힘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냥 막 기도만 해도 상당히 힘이 난다. 그런데 그게 지속이 안 된다. 자꾸만 해야 한다. 8시간 10시간 계속 해야 한다. 그런데 언약이 들어있으면 한번씩 길 가다가 고백해도 은혜와 영권이 들어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렇게 살라는 것이다. 공짜로 살아라. 언약으로 공짜로 살라는 것이다. 힘들게 살지 말고. 이것이 언약 있는 기도생활이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증언자의 눈이 열리게 된다.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완전히 몰라서 그렇지 언약을 누리면 끝난다. 그것이 언약이다. 왜냐면 언약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을 누리는 기도 하나로 전도를 포함한 모든 것을 한번에 해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이래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본래 그렇다. 우리에게 수만가지 문제가 있는데, 답으로 주신 것은 딱 하나였다. 이걸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것이다.

복음의 근본사상이 무엇인가? 너는 놀아라, 내가 다 한다는 것이다. 너는 죽을 필요 없다. 너는 살아라. 내가 죽을테니. 그것이 복음이다. 대신 너는 내게 100% 영광 돌려라. 왜냐면 너는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생명이 니것이냐? 머리카락이 니거냐? 손톱이 니거냐? 니것이 한 개라도 있으면 말해봐라. 그리고 너는 이 모든 것이 내것인 것을 인정해라. 너의 생명이 내것이다. 니것이냐? 니가 만들었냐? 이것이 복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다. 정상으로 생각한다. 왜냐면 옆집 사람도 그렇거든. 전부 비슷하다. 그래서 본래 원래 이런건가보다 이것이 메시지로 들어와 언약되어 버렸다. 이게 치유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가?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한번씩 구체적인 말씀도 주신다. 이렇게 하다가 진행하다가 어느날 평생 자리 잡을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진짜 끝나는 것이다. 우리는 전에도 복음, 끝났다. 그런데 이 말씀 들어오면 진짜 끝이다. 진짜 은혜와 축복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 우리가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끝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언약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한 다른 인생에 대한 응답도 거기에서 다 나온다. 우리는 전부 이런 증언자가 다 되기 바란다. 하나님 앞에 정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도 내게 이 언약의 말씀 하나 주시라고 기도하기 바란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될 줄 믿는다.